

투데이

‘애그플레이션 비상’ 최악 식량파동 오나

세계 곡물가격 폭등...연말부터 국내 영향 식량 자급률 낮아 치명적...대책마련 시급

글로벌 경기 침체에 이어 곡물 가격 폭등으로 일반 물가마저 상승하는 ‘애그플레이션’ 현상이 한반도에 상륙할 조짐을 보이고 있다. 가뭄 탓에 세계 주요 곡물 생산국의 생산량이 급감해 밀, 옥수수, 콩 등 국제 곡물 가격이 치솟고 있다. 식량 자급도가 26%대인 한국도 ‘애그플레이션 태풍’ 앞에서 자유로울 수는 없는 현실이다.

밀가루는 올해 2분기보다 27.5%, 옥수수가루는 13.9% 급등하고 식량성 유지와 사료도 각각 10.6%, 8.8% 오를 것으로 예상했다. 밀가루와 옥수수가루가 자장면, 빵, 국수, 맥주 등 ‘식탁 물가’에 영향을 미치는 대표적인 음식재료라는 점에서 물가 불안 요인이다. 또 사료 가격은 소고기, 돼지고기 등 육류 가격의 상승을 불러오고 축산농가의 생산비용에도 부담을 준다.

선이 2007~2008년, 2010~2011년 당시의 곡물 파동보다 더 심각할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지난 2007~2008년에는 곡물 수급에 큰 문제가 없었다. 무기자급 수입, 주요 생산국의 수출 제한, 옥수수로 증대 등이 곡물 가격을 끌어올렸다. 또 2010~2011년에는 러시아의 가뭄 등으로 세계 곡물 공급량이 3100만t 가량 부족했다. 하지만 올해부터 내년까지 곡물 부족량은 무려 4000만t에 달할 것으로 우려된다. 무기자급마저 국제 곡물시장에 급격히 유입돼 식량 가격이 들쭉거렸다.

옥수수(0.8%), 콩(8.7%) 등은 수입에 절대적으로 의존한다. 이에 따라 정부는 대책 마련에 비상이 걸렸다. 곡물가격 폭등세가 이어지면 밀과 콩을 무관세로 들여오고, 공공비축대장 작물을 쌀에서 밀, 콩, 옥수수까지 늘리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관련업체에도 가격 인상을 최대한 자제해 달라고 요청했다. 농림수산식품부 관계자는 “국제 곡물가격의 동향을 자세히 살펴보고 있다. 국내 물가에 미칠 부정적인 영향을 최소화하는 다양한 대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광복 67주년... ‘만세 만세 만세’

15일 광주 남구 빛고을시민문화관에서 열린 ‘광복절 제67주년 경축식’에서 강운태 광주시장, 조호권 광주시의회 의장과 유공자, 시민들이 만세삼창을 하고 있다. /김진수기자 jeans@

軍 비행장 소음 피해 지방의회 10곳 힘 모은다

전국연합 창립 준비회의...특별법 폐기 촉구

군 비행장 소음 피해지역인 전국 10개 지방의회가 소음 피해에 대한 공동 대응을 위해 힘을 모았다. 15일 광주 광산구의회 국강현(통합진보당) 의원에 따르면 지난 14일 경기 수원시의회에서 군 비행장 소음 및 고도제한 피해를 겪는 전국의 기초·광역 자치단체 의원들이 모여 ‘군용비행장 피해 공동대응을 위한 지방의회 전국연합회(전지연)’ 창립을 위한 준비회의를 가졌다.

이날 회의에는 수원을 비롯한 광주 광산구·대구 동구와 북구, 화성·원주·강릉·서산·군산·예천 등 10개 시·군의 지방의회 의원 등이 참석했다. 이들 의원이 속한 전국 42개 군비행장 소음피해지역 주민은 국방부가 지난달 입법 예고한 ‘군 소음 특별법’에 반대 입장을 보였다. 보상 피해 기준이 지나치게 높을 뿐만 아니라 각 지역의 특수성을 고려하지 않고 기준의 일관성이 없다는 이유에서다. 이들은 이날 결의문을 통해 ‘군 소음 특별법’을 폐기하고 비행장 소음 피해 방지 및 적절한 피해보상이 담긴 법안을 제정할 것을 촉구했다.

해파리떼 출몰 수산물값 폭등세...민어·새우 어획량 ‘뚝’

수온 상승에 따른 해파리떼 출몰로 수산물 가격이 잇따라 폭등할 조짐이다. 15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서해와 남해안에 갑작스레 나타난 해파리떼로 정상적인 조업이 이뤄지지 않아 연근해안에서 잡히는 수산물 가격이 오름세를 보이고 있다. 목표와 신안 일대에서 주로 잡히는 민어는 어획량이 급격히 줄었다. 특히 민어용 그물은 해파리로 인해 찢어지거나 파손되는 경우가 많아 조업 자체가 어려운 상황이다. 일반적으로 한 마리에 3~5kg정도 나가는 민어의 현지 시세는 kg당 2만

4000~2만7000원선. 전년 대비 25% 가량 오른 수준이다. 새우잡이도 비상이다. 새우 대신 그물에 해파리가 많이 잡혀 젓갈용 새우의 산지 시세가 크게 오른 것이다. 광천 토굴 육질의 경우 1kg 기준 지난해 산지 가격이 3만~3만5000원이었지만 올해는 20% 이상 오를 전망이라고 업계는 전했다. 남해안에서 잡히는 생삼치도 어획량이 지난해의 절반 수준으로 줄었다. 삼치가 주로 출하되는 통영의 경우 산지 시세가 30% 상승했다. 소매가는 400g을 기준으로 지난해보다 10% 넘게 오른 4980원에 달한다. /이민기기자 emlee@kwangju.co.kr

LIG손보, 손연재 동메달 실패 안도?

15일 손해보험이 제20회 전국 선수권 대회에서 15억원의 손해를 볼 뻔했다. 15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LIG 손해보험은 런던올림픽을 앞두고 LG전자와 상품보상보험 계약을 했다. LG전자는 지난 5월 한 달간 2012년형 휘센 신제품 에어컨(2인1급 이상) 구매 고객을 대상으로 사은행사를 했다. 손연재가 리듬체조 부문에서 동메달 이상을 획득하면 1인당 50만원을 지급하기로 한 것이다. 이 기간 에어컨 구매 고객만 3000여명에 달했다. 손연재가 종합 5위에 머물러 보상하지는 않았지만 LIG손보는 한때 긴장했다는 후문이 있다. 롯데손해보험은 우리나라 올림픽대표팀이 금메달 13개와 종합 5위라는 예상 밖의 성적을 거두자 수억원 이상의 손실을 떠안게 됐다. 롯데손보는 런던 올림픽을 앞두고 롯데 계열사와 5건의 상품보상보험 계약을 했다. 롯데슈퍼와 롯데면세점은 우리나라 대표팀이 금메달 13개 이

광주시 ‘시민발전소 건설운동’ 전개

16~30일까지 절전캠페인 단채와 함께 절전지킴이를 운영할 예정이다. 절전지킴이는 전력위기 경보 발령 시 위기상황 전파 및 비상시 절전참모요령 등을 홍보하고, 평상시에는 여름철 전기절약 행동요령, 에너지 절약운동을 전개한다고 15일 밝혔다. 시민발전소는 ‘시민의 절전이 발전소’를 건설하는 것과 같은 효과를 갖는다’는 의미로, 전기절약을 통해 시민이 만들어낸 발전소라는 개념이다. 광주시는 최근 10년 동안 하계휴가가 끝나는 8월 셋째, 넷째 주에 최대 전력 피크가 6번이나 발생한 만큼 이 기간 동안 절전운동 확산을 위해 16일부터 오는 30일까지 자치구, 시민

국토부, 이전 공공기관에 기숙사 설치비 지원

혁신도시로 이전하는 공공기관 임직원을 위한 기숙사 건축비용이 국민주택기금에서 저리로 지원된다. 또 이전기관의 종전부동산이 팔리지 않아 사옥 건축비용을 금융기관에서 빌려 경우 차입 이자의 일정부분을 정부가 보전해주는 방안이 추진된다. 국토해양부는 공공기관 지방이전 사업을 촉진하기 위해 이와 같은 내용의

Advertisement for '공무원 대출' (Public Servant Loan) with details on interest rates, terms, and contact information for Kwangju Women's University and Gwangju National University.

Advertisement for '아이엘리시아' (AIELISIA) featuring a list of 150+ menu items, prices, and contact information for Kwangju Suncheon University.

Advertisement for '유스퀘어사우나' (YUSQUARE SAUNA) featuring a list of menu items, prices, and contact information for YUSQUARE 2nd floor.